

특권 중산층 계급은 부동산, 소비, 입시게임으로 재생산되고 있는가?

〈서평도서 : 『특권 중산층: 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 구해근. 2022, 창비〉

양승훈*

구해근의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2002)은 한국의 산업화를 통해 등장한 산업도시, 노동계급, 제조업을 연구하는 내게, 산업 노동자들이 어떠한 계급의식과 조직적·문화적·제도적 활동을 통해(구해근, 2002: 23) 1987년의 대투쟁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일종의 ‘요점정리 교과서’였다. 산업화라는 과정(박기주 외, 2014)이나 산업화에 뒤따르는 숙련형성(Kim, 2020)을 통해 노동자와 노동계급이 ‘즉자적’으로 도출되었다면, 구해근이 언급하는 산업선교나 노학연대의 경험과 투쟁의 누적은 ‘대자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의 탄생’을 선언했었다. 그렇게 형성된 한국의 노동계급은 ‘노동계급 중산층’이 되어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도 했다.

20년이 지나 구해근은 일본의 ‘충중류사회’처럼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특징 짓던(지으려 했던) 한국의 ‘중산층 사회’ 분열 과정을 『특권 중산층: 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이하 『특권 중산층』)을 통해 몇 가지의 변수로 해석하려 한다. 구해근은 ‘이방인의 사회학’의 한계를 딛기 위해 “익숙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질문하는 태도”(구해근, 2022: 247)를 통해 넘어서려 했다는 변도 전한다. 『특권 중산층』은 불평등 구조의 변화, 새로이 등장한 특권 중산층, 강남 스타일의 계급 형성, 구별짓기, 교육 계급투쟁, 글로벌 교육 전략을 다루며 중산층 사회 분열을 설명하려 한다.

*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중산층 분석 전략과 담론적 목표

이미 한국에 중산층을 다룬 사회과학 논문과 저술은 모두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다. 이러한 저술들은 다소 거칠지만, 분석 전략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어느 인구 집단을 준거점으로 두고 중산층을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구체화해보자면, 최상위 계급과 나머지('1:99')로 구분하거나, 특권 중산층('10:90')이나 선망 직종 종사자와 나머지('20:8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다.

일단 '1:99'의 서사는 20세기 말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홍행'했던 신자유주의 비판과 맞물린다. 이러한 저작들은 전세계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가 계급과 실리콘밸리 자본가 및 '창조계급' 같은 '슈퍼 리치'와 나머지 인구의 전선을 긋는다. 분노하여 '초국적 엘리트 집단의 과두지배'를 해체하는 것이 정치적 목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1:99'의 문제 설정은 가장 래디컬한 정치적 목표인 전복("분노하라")을 향해 돌진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99'의 설정을 통한 '중산층의 와해' 또는 '보통사람들의 전쟁'이 크게 소구되지 않는다. 경제성장기 대기업 부문과 공공부문이 고용하는 '중산층'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중산층 논의는 '10:90'의 구도와 '20:80'의 구도를 설정하고 분석전략을 구사하는 것에 가깝다. 한국의 대기업 부문이 현재 고용하는 숫자는 『특권 중산층』이 인용하는 자료(조귀동, 2020:25-26)에 따르자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14.5%,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가 7.9%로 합쳐서 22.4%이고, 자영업과 가족 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16.5%가 된다. 그리고 신규 채용 관점에서는 12.5%만이 이 중산층으로의 길로 진입할 수 있다(『특권 중산층』: 101). 최근 몇 년간의 '중산층 논의'는 '20:80'의 '보통사람들의 시대'가 '10:90'의 '특권 중산층' 계급으로 변모하는 상황과, 그 '원인'과 '해법'을 찾는 것이 다수였다. '10:90'의 '10%'를 점하는 주체들에 대한 비판도 수반됐다.

일단 코호트 효과와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했던 세대를 가지고 중산층 와해를 분석하면 '세대론'이 된다(우석훈·박권일, 2007; 이철승, 2019). "선배들에게 열렸던 문이 미래세대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세대론은 기성 세대의 용퇴나 양보, 청년 세대에 대한 기회 제공이나 주체화를 과업을 제시하곤 한다. 둘째로 한국의 산업자본주의를 문제 삼는 것이다. 산별노동조합 운동의 실패와 기업별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와 제조 대기업의 자동화를 통한 숙련 배제적 작업장 재편, 이에 따른 하청기업과 비정규직 활용을 문제삼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책임, 대기업의 생산 방식, 혹은 제조업의 혁신경로 자체를 주요 분석 대상이자 문제적 주체로 설정하고, 노동자 간의 수평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민정 상생 협의,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4차 산업혁명을 포괄하는 정의로운 전환 등의 과업을 제시한다(김현우, 2014; 정운찬, 2020; 전병유·신진욱 편, 2016; 조형제, 2016; 요코타 노부코, 2020). 마지막으로 자산 불평등도 문제 삼을 수 있다. 한국의 자산 시장 문제는 대체로 부동산 문제이고, 이는 비단 상위 1%의 국토 독식문제가 아닌 부동산 투자에 적응했던 적지 않은 중산층과 아닌 사람의 격차 문제이며, 다양한 정치적 언술과 정책 수단을 동원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탄생하게 된다(손낙구, 2008).

특권 중산층의 재생산과 구별짓기

『특권 중산층』은 중산층 축소와 확대된 사회적 양극화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시장, 산업구조,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같은 ‘원인’에 대해 탐색하기 보다는, 바로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과 명품·사치재 소비를 통한 구별짓기와 사회적 과소비의 조장이라는 현상을 보고하려 한다. 즉 책은 ‘특권 중산층’의 등장 원인을 설명하기 보다는, 이미 ‘닭/달걀’ 문제가 될 수 있는 교육과 소비를 통한 ‘계급 재생산’ 측면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계급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 부르디외의 ‘자본’ 개념이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요컨대 책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산층에 대한 관념 속에는 ‘도덕적 정당성’이나 고유한 ‘문화 자본’이 없고 오로지 ‘물질주의적’이며 ‘성공지상주의적’인 다소 속물적 경제주의적 특성만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고도화는 이미 10% 상층부 중산층들에게 ‘특권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특권 중산층』: 113). 이들은 부동산 투자 게임에서 승리하여 강남에 입주하고, 명품-웰빙 소비를 통해 구별짓기를 구현하면서, 높은 교육열과 ‘공정한 입시 질서’라는 게임의 규칙 하에서 서열화된 대학의 상층부를 접하기 위해 자녀세대의 입시와 어학연수와 유학을 통한 코스모폴리탄 문화자본 획득을 후원하는 전략으로 ‘계급 재생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244).

이 지점에서 『특권 중산층』이 특권 중산층의 출현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포하지 않음은 물론이요, 특권 중산층 출현의 메커니즘을 해석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다. 강남 부동산 투자와 거주, 소비와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의 성과는 유비적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경제자본-사회자본-문화자본간의 순환과 계급 재생산의 인과관계는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구해근이 언급한대로 한국사회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특권 중산층의 상징자본이 없고, 미국처럼 ‘동문’의 힘이라는 사회자본을 갖고 입시 성과를 낼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오직 경제자본과 ‘입시시장’의 힘을 통해 ‘스카이 캐슬’을 지어야 할 따름인데, 그 ‘성과(가성비)’가 어떤지는 여전히 학계 내부에서 논쟁이 정리되지 않았다(정인관 외, 2020). 계급재생산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쉽다. 책이 주장하는 ‘중산층 분열’의 메커니즘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라

볼 수 있는 부제인 한국인들의 ‘불안’을 연관지어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책을 덮으며 한국에 번역되어 들어온 『특권 중산층』의 독자가 여전히 한국학을 즐겨 읽는 해외의 독자인 것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는다. 다시 한국적 맥락에 맞게 특권 중산층 논의가 재배치 되려면 어떤 ‘보편’, ‘특수’, ‘문제설정’ 속에서 다뤄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책이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책에 누락되어 있는 지방과 수도권의 맥락이나, 젠더적 관점 등이 들어와야 할 테다. ‘문화적’ 과정인 주체화를 통해 형성되는 노동계급과 특권 중산층을 말하기 위해서는 특권 중산층 가족의 성별 분업을 샅샅이 뜯어보아야 하고 ‘강남’을 말하기 위해 선 블랙홀로서의 서울이라는 맥락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예컨대 산업도시의 특권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노동계급 중산층’(대기업 정규직) 가족은 서울-강남의 특권 중산층의 소비, 부동산, 교육전략을 유사한 방식으로 다소 투박하게 전개하는 것에 그치는가? 서울의 노동시장과 판이하게 다르게 작동하는 지방 산업도시의 특성과 성별 분업이 특권 중산층 재생산 전략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공간분업 관점을 고려해 좀 더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양승훈, 2022)?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학문후속세대의 몫이지만 말이다.

■ 참고문헌 ■

- 구해근.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파주: 창비.
- 김현우. (2014). 정의로운 전환. 서울: 나뭇박스.
- 박기주 외. (2014). 한국 중화학공업화와 사회의 변화. 서울: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손낙구. (2008). 부동산 계급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 양승훈. (2022). 산업도시의 정상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와 공간분업. 문화과학. 112. 125-143
- 요코타 노부코. (2020). 한국노동시장의 해부. 서울: 후마니타스.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서울: 레디앙.
- 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전병유, 신진욱 편. (2016). 다중격차. 서울: 페이퍼로드.
- 정운찬. (2019).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서울: 동반성장연구소.
- 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율. (2020). 한국의 세대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제와사회 127. 12-59.
- 조귀동 (2020). 세습 중산층 사회. 서울: 생각의힘.
- 조형제 (2016). 현대자동차의 기민한 생산방식. 서울: 한울.
- Hyung-A, Kim. (2020). *Korean Skilled Worker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